

# 박주영 또 벤치 신세

챔스리그 교체 명단에만 올라…팀은 2-1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는 한국 국가대표 플레이어 박주영(26·아스널)이 또 벤치에 놀라워졌다.

박주영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잉글랜드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F조 올림피아코스와의 홈경기에서 교체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아스널은 2-1로 이겼다.

아르센 뱅크 아스널 감독은 마루아네 사막과 미켈 아르테타를 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고 후반에 샤마 대신 간판 공격수로인 판 페르시를 투입했다.

그리스 클럽인 올림피아코스가 예상 외로 선전해 경기 내내 아스널을 긴장시키면서 백업원인 박주영에게는 출전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스널은 전반 8분 알렉스 켐벌레이이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데 이어 20분 안드레 산투스가 폐널티지역 원쪽에서 추가골까지 뽑았다.

그러나 올림피아코스는 전반 27분 데이비드 푸스터가 크로스를 방아찧듯 머리로 받

아 만회골을 터뜨렸다.

올림피아코스는 이후 짜임새 있는 패스와 빠른 역습으로 아스널 골문을 계속 위협했으나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다.

아스널은 지난 14일 도르트문트(독일)와 비기고서 이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둬 1승1패로 승점 4를 기록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는 벨라루스 민스크

디나모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H조 2차전 바

테 보리소프와의 원정경기에서 리오넬 메시

를 앞세워 5-0으로 이겼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 메시는 두 골을 터뜨리며 바르셀로나의 조별리그 첫 승리(1승1무)를 이끌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194골째를 터뜨려 바르셀로나 내에서 세사로 로드리게스(235골·1942~1955년)에 이어 개인통산 다득점 2위에 올랐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강호 웨슬리 베렌시아는 스페인 에스타디 데 메스타야에서 벌어진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각각 프랭크 램퍼드와 로베르토 솔다도가 한 골씩을 터뜨려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 상승세 광주FC, 울산 '6강 희망' 꺾나

내달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서 K리그 27라운드

광주 FC가 내달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의 K리그 27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광주는 화끈한 공격 축구로 칼길 바쁜 7위 울산(승점 38)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지난 25라운드 성남과의 원정경기에서 3-1로 7경기 만에 승전보를 올렸고, 지난주 부산과의 대결에서는 2골을 뽑아내면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화력이 살아나면서 신생팀다운 패기 넘치는 축구가 전개되고 있다.

또 잇달아 들려온 낭보에 선수단 분위기도 상승세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왕 후보 이승기가 월드컵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고, 발

목 부상으로 지난달 올림픽대표팀 소집훈련에 불참했던 김동섭이 재활을 완벽히 끝내고 훈련장에 재승선했다.

'빛고을 트리오' 김동섭·주양파·율로·박기동과 함께 이승기의 활약이 더해져면서 광주의 공격력이 강화됐다.

공격수 출신 신장 수비수 유종현은 27라운드 조커로 울산 공격수 김신욱과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1988년생 동갑내기인 유종현과 김신욱은 196cm의 건장한 체격을 보유한 선수들로 고교와 대학무대에서 상대팀으로 자주 만났었다.

아마 무대에서는 수비수 김신욱이 공격수 유종현을 막았지만 프로 무대에서 둘의 자리가 뒤바뀌었다.

광주 유니폼을 입은 유종현이 수비수로 전향했고, 2년 먼저 프로 무대에 뛰어든 김신욱은 울산의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유종현은 상황에 따라서 김신욱과 협력대결을 벌일 수도 있다. 유종현은 26라운드 부산과의 경기에서 전면에 나서 시즌 2호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뒤바뀐 운명의 두 선수의 맞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 고조된 광주의 분위기만큼 울산도 지난 인천 원정경기에서 2-0 원승을 거두는 등 최근 3연승을 달리며 호시탐탐 6강 자리를 노리고 있다. 6강행 티켓을 노리는 울산 입장에서는 광주는 반드시 꺾어야 할 상대다.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운 광주가 K리그가 을잔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프로축구 팬들의 이목이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日 대지진 악성 플래카드 사과"

### K리그 전북 현대

K리그 전북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때 관중석에 걸렸던 일본 대지진 관련 악성 플래카드에 대해 일본 국민과 축구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전북은 "이번 일로 실의에 빠진 일본 국민과 축구팬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는 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일부 팬들의 비뚤어진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로 기쁨을 만끽해야 할 지금 저희 구단은 더욱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관계자는 "도저히 저정신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단의 명예를 더럽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

북과 세레소 오사카(일본)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때 전북 응원석에는 '일본의 대지진을 축하합니다(日本の大地震をお祝います)'라고 적힌 종이 틀에 달려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세레소 오사카 측의 항의로 플래카드는 바로 제거됐지만 일본 누리꾼들에게 이 소동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전북은 문제의 플래카드를 제작·제작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 관계자는 "도저히 저정신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단의 명예를 더럽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과 세레소 오사카(일본)의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때 전북 응원석에는 '일본의 대지진을 축하합니다(日本の大地震をお祝います)'라고 적힌 종이 틀에 달려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세레소 오사카 측의 항의로

플래카드는 바로 제거됐지만 일본 누리꾼들에게 이 소동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전북은 문제의 플래카드를 제작·제작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북 관계자는 "도저히 저정신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단의 명예를 더럽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



###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결단식

전남선수단이 전국체전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가졌다.

전남체육회는 29일 전남도청 윤인실(4층)에서 박준영 도체육회장,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한 300여명의 체육 임원,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목포대학교 김도부 총장과 목포과학대학 베구부 문정원은 선수대표로 선서를 하

며 전국체전의 결의를 다졌다.

올해 전국체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20개 시·군에서 치러지며 2만8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전남은 45개 종목에 1643명(선수 1288명, 임원 4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10위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

### 회원행 안내

광원회원 광고판 정리(해외 및 해상 차량 개별 기록)입니다!

또한 선화회 이전 여행사업체의 경우는 따로 인증비를 내습니다.

10월 1일(토)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경찰청 행정법원 출판 10월 1일(토) 7:00~16: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45495900~07-45495905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기획전시회 출판부: 신한은행, 소방본부 10월 1일(토) 07:00~18:00 출판부: 광주광역시도민권익위원회 07-3608-3894

&lt;p